



ID저장
로그인
회원가입 ID/PW 찾기

- 노무현이야기**
- 걸어온 길
 - 말과 글
 - 함께 생각해봅시다
 - 추모게시판
 - 좋은글과 영상

대통령기록관
16년 대통령 웹기록
참여정부자료실
청와대브리핑

봉하마을

봉하살

한국미래발전연구원

추모페이지

말과 글

관용은 용서와 다릅니다.

조회수 : 52304
등록일 : 2009.03.05 20:29

민주주의와 관용과 상대주의라는 저의 글을 읽고 많은 분들이 찬평을 올려 주셨습니다. 그 중에는 관용을 용서, 포용 등의 뜻으로 이해하고 반성과 사죄가 없는데 용서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글이 있었는데, 저도 그 글을 읽고 감성적으로 상당히 공감했습니다. 그러나 그 글에서는 제가 말한 관용의 의미를 다소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서 관용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려고 합니다.

우선 관용이라는 말의 의미가 용서나 사면이라는 말과는 다르다는 점과, 관용의 역설, 관용의 한계 등에 관한 말씀을 덧붙이겠습니다.

우리말 사전에는 관용이라는 말이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의 정의는 '참다'라는 뜻의 라틴어 'tolerare'에서 온 말. 다른 사람들에게 행위나 판단의 자유를 허용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고, 옥스퍼드 사전에서는 '권위적인 명령에 의한 간섭과 방해를 받지 않고 행동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것', '어떤 것에 대하여 강력하게 반대하면서도 용납하는 것', '국가의 정책으로 사회의 여러 차원에서 다양성을 허용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양의 관용이라는 말이 어떻게 해서 '관용'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었는지는 잘 알 수 없으나, 그 말에 대한 사전적 해석이 이렇게 달라진 것은 아마 관용이라는 사상을 접하고 다룬 역사와 문화가 달랐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해석을 따라야 할까요? 민주주의와 관련하여 우리가 관용이라고 말할 때에는 그 뜻을 서양 사전에 나온 해석과 같은 뜻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용은 용서나 자비와 같은 일방적 호의와는 다르고, 지배자의 통치 기술로서 사용되는 은사나 포용과도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말한 관용이라는 말은 누구를 용서하고 안하고 하는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이 나온 김에 관용의 역설과 한계에 관하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관용을 극대화하면 관용의 사상 자체를 부정하는 사상을 방관해야 하는 모순에 빠지게 되고, 이것은 결국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절대주의 사상을 용납하여 민주주의 체제가 스스로 무너지는 결과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관용의 역설'입니다. 그리고 독일의 와이마르 공화국이 나치스에게 무너진 것이 바로 그런 역사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전후의 독일 헌법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에 대하여는 관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도 비슷한 조항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관용의 한계, 내지 상대주의의 한계인 것이지요.

그러나 관용의 한계라는 것이 사상과 양심의 자유, 그리고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게 된다면 민주주의 자체가 다시 위협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하여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사상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생각이나 말만으로는 처벌할 수가 없고, 행동의 경우에 한하여, 그것도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협'이 있을 때 한하여, 규제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한계에 다시 한계를 설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국가 보안법은 바로 이 한계를 벗어나서 사상과 양심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악법인 것입니다.

다시 김수환 추기경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일전에 제가 올린 글은 그분이 민주주의 원리를 부정하지 않는 한 보수적 견해를 말씀하셨다 하여 민주주의를 배반한 것으로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보수적 견해도 그에 대한 비판도 '다름'으로 존중이 되어야 하는 것이 관용의 원리이나, 비판은 논리로 해야지 인격에 대한 공격이어서는 관용의 자세라 할 수 없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국가 보안법 까지 옹호한 발언을 하셨다는 내용을 보고, 그분마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을 보면 민주주의라는 것이 참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을 말

- 빠른 메뉴
- 글로벌네트워크
 - 부산지역위
 - 광주지역위
 - 제주지역위
 - 전북지역위
 - 대구·경북지역위
 - 전남지역위
 - 대전·충남지역위
 - 동호회
 - 봉하 오는 방법
 - 모역 안내

9개월의 비탄화면
오늘 하루 열지않음

한 것입니다.

저는 김용환이라는 분이 쓴 '관용과 열린 사회'라는 책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책을 보면 유네스코는 1995년을 '세계 관용의 해'로 선포하고 그해 10월 파리에서 열린 제 28차 총회에서 '관용에 관한 선언'이라는 것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관용이라는 것이 제가 위에서 소개한 뜻풀이 수준보다 훨씬 깊고 넓은 가치와 역할을 가진 원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용에 관한 교육에 관하여 많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유학생 수학도가 올린 '노공이산님 글을 읽고' 내용 중에 있는 추천 글 '왜 시민민주주의인가?' 라는 글 중에 있는 다음의 대목은 눈여겨 볼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결국 프랑스와 독일이 공통적으로 도달하게 된 시민교육의 원칙들을 다시 보자."-현재 정치 상황을 분석할 때 학생들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고려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독일) vs 스스로 정치적인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적극적인 시민 의식을 체득한다(프랑스)

시민교육에서 교화와 주입식 교육을 금지한다(독일) vs 시민 의식은 다른 과목과는 달리 지식의 전수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프랑스)

출력하기    

총평 164개

김정난 2009.03.05 20:31

아싸

냄비뚜껑 2009.03.05 20:37

옥스퍼드 사전에서는 '권위적인 명령에 의한 간섭과 방해를 받지 않고 행동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것', '어떤 것에 대하여 강력하게 반대하면서도 용납하는 것', '국가의 정책으로 사회의 여러 차원에서 다양성을 허용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ABO철이 2009.03.05 20:37

ㅋㅋㅋㅋ

현진 2009.03.05 20:38

^^..
행복합니다..
노공이산님..이~~~
게서서..
철뚜덕..~~~

수니서니 2009.03.05 20:39

공부 잘 하였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습득하여야겠네요.

보기신랑의마누라 2009.03.05 20:39

이러시면 아니되지웁니다...소나기처럼 후두둑 내려오시면 아니되웁니다.
오셨을 때 처럼 또 획~ 하고 다음 불날을 기다리라 하시며 가실까 저어웁니다.
만약, 그러신다면 십리도 아니 로그아웃 순간 손가락에 물집이 잡히실 겁니다^^

만허공 2009.03.05 20:41

방어사는 용서입니다. 잘못된 것을 곧 뉘우 칠 것이기에... ㅎㅎ
나도 용서를 바랍니다. ㅎㅎㅎ

만허공 2009.03.05 20:45

급해서 우선 이렇게 확보했습니다^^*방긔님,하늘&바람님!왜 이렇게 총잡이 보다 빠른지... ㅎㅎ
손자가 할아버지 수업을 잡고 당기고 하는 것은 봐 줄수있지만 눈 부라리고 덤비면 안되는 거 같습니다.

방긔 2009.03.05 20:45

다섯번을 정독하였습니다..
관용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제자신을 반성해 봅니다..(꾸벅)

방긔 2009.03.05 20:46

ㅎㅎㅎㅎㅎㅎㅎㅎ
다불어님..만허공님..
구엽게 봐주세요~ ㅎㅎ

노랑경 2009.03.05 20:46

사랑 합니다.
존경 합니다.

매뚜기아빠 2009.03.05 20:46

이거 정신 없네요.^^
그래도 즐겁습니다.*^^*

폴레랑스의 의미를 다시금 배우고 생각합니다.^^

다불어 2009.03.05 20:47

망여사 기발하다.
점찍기
나도 님들을 관용하리 ㅎㅎㅎ

.는 반성 그림 ..은 관용?

가영아빠 2009.03.05 20:49

정말 이름노무현님 맞죠^^
우와 참여광장에 글을쓰시니
님 흥분되네요
손가락이 떨리네요 사랑합니다^^

멋 2009.03.05 20:51

정치도 잘 하셨지만 글도 참~ 잘 쓰신다!!! a(☆~☆a)

pegasus 2009.03.05 20:52

님의 글을 스크랩해서 꼼꼼히 읽겠습니다
조그만한 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비집고 들어가서 님께 좀더 가까이 갈립니다
대통령님 항상 건강하세요..

정도행보 2009.03.05 20:53

공부 잘 했습니다,
먼저 글을 보고 머릿속에선 느껴지는데
좀처럼 정리가 잘 안되던걸 오늘 말끔하게 정리까지
해 주셨습니다. 늘 감사함을 담고 있습니다 건강하십시오~!!(꾸벅)

울빗대 2009.03.05 20:53

이틀연속 올리시는 글을 읽으며
하루빨리 봉하로 찾아가 힘차게 불러보고 싶습니다.
대통령님의 함자를,,,,,
저 지금 가슴이 막힙니다.,

다불어 2009.03.05 20:53

폴레랑스와 diaspora
지금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가치라는 생각합니다.
소수를 향한 다수의 횡포.
다양성을 거부하는 획일화 내지 전체주의.

코발트 블루 2009.03.05 20:56

대통령님 제가 좀 있다 진정되면
찬찬히 읽어 보겠습니다..

내마음 2009.03.05 20:58

이론 이론 ..너무 웃다가 이제서야스크랩 하면서 천천히 천천히
지금 내 맘이 감동의 쓰나미가 와서 ㅎㅎㅎㅎㅎㅎ

곧은소나무 2009.03.05 20:59

노통님의 글이 반가워.. 몇번을 읽었습니다.
자주.. 노통님의 글을 대했으면.. 하는 바람을 해뵙니다.

빨간사과꼬마 2009.03.05 20:59

다시 한번 읽을겁니다~

cjsals 2009.03.05 21:00

감사합니다~

산마다강 2009.03.05 21:01

좋은말씀 공부 잘 하였습니다.. 그럼 관용은 동양의 정의문화"에서의 장점과두 비슷한 해석을 갖고 있는지요...그렇게 생각해두 되
는지요....존경합니다.항상 건강하세요....

山中나그네 2009.03.05 21:03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읍내귀신 2009.03.05 21:04

꿈만 같네요 *A*

발목잡이 2009.03.05 21:05

언론에서 또 떠들것 같습니다

노 전대통령! 홈페이지에 글올려-정치인을 우회적으로 비판-정치 제거하!
이 못난이는 관용을 용서라는 하나의 뜻으로 만 생각을 했습니다

마당 2009.03.05 21:12

호미 이번에는 등수가 무의미해졌네요. 제가 1등할 때까지 노짱님 계속 좋은 글 올려주십시오. 언젠가 저도 1등할 때가 있겠지요.
뒤... ㅎㅎㅎ 관용이란 개념을 찬찬히 다시 살피겠습니다...

씨알의 터 2009.03.05 21:13

"민주주의는 다수결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대화와 타협이 더 중요하다.

대화와 타협은 상대에 대한 관용을 전제로한다.

관용이란, 나와 다름을 인정한다는것이지만 관용의 역설은 용납할수 없으며

다름을 인정하되 방임하는 소극적 관용만으로는공동체가 유지될수없다.

공동체의 목표를 획득해가기위한 대화와 타협, 즉 적극적 관용이라야 한다. 적극적 관용을 통해 얻은 결론을 다수결로 처리할때
비로소 반대자의 저항도 줄어들것이다"

이것이 대통령님의 말씀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핵심요약이었습니다만.

나라사랑님 2009.03.05 21:13

대통령님, 여사님,
저녁진지는 맛있게 잡수셨습니까?

오늘 저녁 게시판은 꼭 찬 느낌이 드는 것이 마치 잔칫날 같습니다.

관용이라는 말이 이렇듯 깊고도 어려운 말인데

그것을 행하기는 더 더욱 어렵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제물을 받아 온 학생처럼 마음이 바빠지고

당분간은 관용이라는 말이

뇌리에서 맴돌 것 같습니다.

하늘색 꿈... 2009.03.05 21:16

좋은말씀 새겨 들겠습니다.

흙마당 2009.03.05 21:20

늘 저를 부끄럽게 만드십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글을 읽으면 늘 스스로 부족함에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더욱 깊고 깊은 사고에 닿을 수 있도록 공부해야겠습니다.

언제 글이 다시 올라올까 긴장됩니다. ^^

지금여기 2009.03.05 21:22

이방인으로 프랑스에서 경험하는 "플레랑스"는 누가 누구에게 주는 것도 받는 것도 아닌 관념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플
레랑스는 저 자신으로부터 비롯되고 마무리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을 자주 경험합니다.

didfks 2009.03.05 21:23

와이츠를 다리면서, 자꾸 사람사는세상 게시판이 떠올라 들어와 보았더니.... 노짱님과 마음이 통하였나봅니다.

관용, 용서,그리고 대화 열심히 생각해보겠습니다.

건강하시죠. 걱정이 되어서요. 사랑합니다.

빨간사과꼬마 2009.03.05 21:24

다시 한번 천천히 읽었습니다..

관용이란 단어가 이렇게나 많은 의미가

담겨있는줄은 몰랐습니다 ...

笑而不答 2009.03.05 21:26

새겨 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철푸덕

연두랑 2009.03.05 21:27

늦게 들어와서 급한 마음에 찬성을 누른다는 것이 그만 반대를 클릭했어요.

어쩔 좋을까요?

씻을 수없는 죄를 짓고 그냥 도망칠까~~ 하다가 이실직고 합니다.

용서해 주신다면 처분대로 행하겠습니다.

봉하에서 노역을 하라셔도, 아님 벌금을 부과셔도 달게받겠습니다.

항상 노짱님 내외분 홈모하고 있습니다.

이건 진심입니다 믿어 주세요.

노짱님 내외분께서 고운 밤 보내시기를 바라오면서
다시 한번 엄청난 실수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페라떼 2009.03.05 21:28

좋은 글 감사합니다.
반가운 마음에 별컹컹 목마른 사람 물 마시듯 읽었는데,
다시 한번 곱씹듯 천천히 읽어봐야 되겠네요. 늘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좌과 2009.03.05 21:30

1주일에 4편의 글을 올리시다니...

우리들은 하염없이 즐겁지만♡

우리 대통령님♡

행복한 저녁시간 되세요.

산바다강 2009.03.05 21:30

여사님과 함께 좋은밤 편안한밤 되세요....꾸벅.....

똥똥이 2009.03.05 21:32

읽고 또 읽고 생각해보고 제 삶에 비추어 보겠습니다.
얼마만큼 적용할 수 있을지...그치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가르치심 감사합니다*^^*

kjj7011 2009.03.05 21:35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2동 2009.03.05 21:36

반갑고 가슴이 벅차고 감사합니다

그러서 야지요

요지음 국민들 매우 불안하고 힘들어 마음 들곳이 없습니다

너무 의기소침해 하시지 마시고 자 국민 여러분 힘냅시다

하시며 용기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도투 2009.03.05 21:39

구구절절 맞는말씀 되새기면서 읽어내려갔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분이 대통령이었는데...

대한민국은 그래도 참 행복한 나라였습니다...ㅠㅈㅠ

그런데 지금은...

보미니&성우 2009.03.05 21:53

네... 잘 이해 했습니다 ^^*

얼음공주 2009.03.05 21:59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한번의 배움의 시간이 되네요~~~

독신일증 2009.03.05 22:00

관용이라는 단어를 저는 이렇게 해석 하고 싶습니다. 나와 뜻은 다르고 어쩌면 정반대의 것이지언정 그의 진정성이 담긴 것이니 들어 보아야 하고, 그들이 봄으로 인해서 나와 그가 다른점이 어떤것인가. 그 다른 점을 그 상대방에게 어떻게 이해 시킬것인가! 그런 데 문제는 난 그의 모든 진정성?을 이해 하려고 하지만 상대는 나의 모든 것을 이해 하지 않으려고 했을때. 나의 관용적 태도는 무시 되고 가치 없는 것으로 전락 하게 되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상대방이 인간과 인간으로서의 대화 방법이 어떤 것인가를 안다면, 고집과 오만과 독선으로 자신의 주장을 계속 하긴 힘들겠지요. 재밌는것?은 한국은 이런 관용의 자세가 무시 되고 한 달 바보 들의 행진과도 같은 몽상적 태도 라고 규정짓고 확인사살 까지 하는 카니발리즘이 만행 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 입니다. 다른 말로 더 심하게 비판? 하자면, 그들의 정신상태가 제정신인지 아닌지 분간이 안된다는데 있지요. 과연, 한국에서 관용적 태도로 문화 인류학적 학문을 탐구한 한민족의 정신적 성숙도로 작용 할수 있을지 솔직히 의문스럽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용적 태도는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정신적 성숙도를 나타 내는 지표로 작용 하는 것은 그나마 다행인것 같습니다. 늘 새로운 배움의 스승 이십니다. 노공이산님께 감사 드립니다. 풀에 詩人 이창섭 드림.

과천아줌마 2009.03.05 22:01

네. 좀 더 깊이 공부 하겠습니다.

담주에는 유시민님 '후불제 민주주의'도 읽어야 하고 공부 많이 하네요.

터진후라이 2009.03.05 22:02

저는..위에 나열해 두신.그 보편적인 의미의 관용만을 대체로 인지하고 있었는데.

좀 더 광범위하고 큰 뜻의 관용을 활용 할줄 알아야

성숙한 존재들이 되겠구나..싶군요.

관용..이거 하나만 완성도 있게 할줄 알아도.

세상이 한층 업그레이드 될텐데..

[관용과 열린 사회/김용환]

↑ 도서 소개도 은근 훌륭두신 센스가

체계 포착 되었습니다..^^

책자를 통해서..좀 더 깊고 찬찬히 관용..에 대해

이해 해 볼게요.

짬.

digna 2009.03.05 22:13

노짱님 말씀이 쪽쪽 머리에 가슴에 와닿습니다.

도원경 2009.03.05 22:13

숙제는 진짜 싫어 하는데..... 숙제를 주시는군요 저기구석에서
손들고 있습니다 *^^*

상식대로 2009.03.05 22:19

저도.. 정말로 진정이 되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내일은 정말로.. 관용의 의미를 되짚어 보는 하루를 살겠습니다.. 약속드려
요~~~ 글도 널 정독해서 잘 읽을게요.. 지금은 흥분이 되서리... 진정.. 진정..

붕어마니 2009.03.05 22:22

관용..
끝없이 되새김질 해 봅니다~~

비단장시 2009.03.05 22:32

일단 추천누르고 ㅎㅎ
오자마자 컴앞으로 혹시나 노짱님께서 또 무슨글 올리셨을까 궁금했는데
오오오오~~ ㅎㅎ
반갑습니다~

윈도우먼 2009.03.05 22:37

연두랑님,,, 누가 감히 노공이산님 글에 반대를 했나했는데,,, ㅎㅎ
연두랑님 이셨네요,,, 노공이산님 용서해주지 마시고,,,
따뜻한 봄날 연두랑님 서울에서 내려오시면,,, 사저 주변 쓰레기
줍기 봉사 시키세요,,, ㅎㅎㅎㅎㅎㅎㅎㅎ

비밀정원 2009.03.05 22:37

아이쿠!! 웬 떡이랍니까.
신이납니다.
숙제하느라 날밤 샅갓깁니다^^

틀리엄마 2009.03.05 23:27

시민교육.. 자신의 이해관계..(VS)시민의식...스스로 정치적인 의견 표명..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귀거래사 2009.03.05 23:28

요즘 너무 행복합니다
올때마다 노짱님 글이 보여서요
노짱님 보고시피요 TTTT
건강하세요

대륙 2009.03.05 23:37

말은 하는 입장에서가 아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어떻게 해석되어졌는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하십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서 말씀을 잘 하시는데도 말귀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던 저를 포함한 어리석은 사람들 때문에 고생(?)많이 하
셨지요.

'그 글에서는 제가 말한 관용의 의미를 다소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차이에서 말입니다.
하지만 '사람 사는 세상'에서는 대통령님께서 덧붙여주시니 다행입니다.

'어떤 것에 대하여 강력하게 반대하면서도 용납하는 것' '국가의 정책으로 사회의 여러 차원에서 다양성을 허용하는 것'의 의미를
저는 몰랐거든요. 오늘도 밤 늦게까지 공부하면서 행복한 마음으로 웃으며 왔는데, 더욱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의 글을 읽으며 본연의 모습을 찾으시는 듯(죄송)하여 또한 행복합니다. 글을 읽는 신바람으로 공부도, 돈도 열
심히 벌겠습니다.

대통령님내외분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토르(블루핑크) 2009.03.06 00:01

제가 읽은 관용에 관한 글이 있습니다.
노공이산님의 글을 이 글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해도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차이는 존중하되 차별은 배격한다.'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이러한 태도는 곧 관용으로 이어진다. 관용은 다양성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나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 다른 방식으로 삶을 살고 있는 사
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다.

나와 다른 사람을 그 사람의 관점에서 이해하게 되면, 자연히 나와 다른 것을 관용으로 대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관용은 다른 사람
에 대한 이해의 출발이 아니라 이해의 끝에 적용되는 가치이다.

다시 말해 관용은 다른 사람에게서 나와 다른 점을 발견했을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흑백 논리의 단순함 속에서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려 하거나 자기편이 아니기 때문에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을 인정하고 더불어 사는 지혜를 모색하자는
것이 관용의 기본이다.

푸른소나무@ 2009.03.06 00:20

오늘 또 하나 배웁니다.....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차칸늑대 2009.03.06 00:34

***몰레랑스의 의미를 다시금 배우고 생각합니다.(2)

*^_____^^

하늘an바람 2009.03.06 02:32

생각하고 글 적으면 자리도 없어 점만 두개 찍고 뿔뿔 하느라
늦었습니다..좋은글 깊이 깊이 새기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님...^^*

청허 2009.03.06 05:55

반백년을 살아오며 지금까지 진정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분으로 마음 깊이 존경하였던 그런 지도자가 저에게는 없었습니다...도
울 김용욱선생의 이회영과 건국60년의 칼럼을 읽고...감명을 받아...교과서에 전혀 언급이 안되었던 특별히 관심을 갖지 못한 분들
은 전혀 몰랐던...항일독립운동의 요람이요 대부였던 아나키스트 이회영 열사의 행적을 알아갈수록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
니다...지금 대한민국은 열강들의 동북아패권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신들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위정자들로 인하여 풍전등화의 위
기에 처해 있습니다...반만년 역사의 대한민국을 망치는 자들을 응징할 대항마가 절실한 시기인 겁니다...하지만 거대한 골리앗이
되어버린 거대여당을 상대하기에는 지역,학력,경력에 흠집투성이에 노련함도 없고...젊은 패기도 부족한 어정쩡한 그런 야당의 대
표적 인물들을 보면...답답함과 함께...대권 싸움에서도 전혀 승산이 없다는 것을 단언합니다...하여 노무현님께서 주창한 전국정당
을 만들기 위해서는...기존 민주당의 주요인사를 2선으로 물리우고...국민들이 깜짝 놀랄...젊고 패기가 넘치는...영국의 블레어
나...미국의 오바마 같은...새로운 인물을 발굴하고...키우고 조력하는 역할을 하였으면 합니다...새로운 인물에게 노무현 전 대통령
님의 평소가지고 있는 소신과...정치의 노하우와 인맥을 연결 시켜주고...색즉시공의 마음으로...그리하시면...후세에 언젠가는 노
무현 전 대통령의 숭고한 마음이 우당 이회영 열사처럼...재조명되어...수백 아니 수천년간 명예롭게 역사에 길이 남으리라 불니
다...^^

빨소 2009.03.06 06:13

惡罪而勿惡罪矣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살인자가 있을 때 살인죄라는 측면에서는 마땅히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 그러나 인간이라는 측면에서는 살인자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 전까지는 따스한 가슴으로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 이것이 관용인 것이다. 관용의 대상은 사람이지만 범죄행위가 관용의 대
상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리더는 냉엄한 이성의 소유자이면서 동시에 따스한 가슴을 지녀야 하는 것이다.

우주곰 2009.03.06 06:32

머리로는 이해하면서도 정말 중요한 문제는 얼마나 행동으로 나타나느냐 하는 것인 듯 싶습니다.
'다름'을 곧 '틀렸다'로 결론지어버리기 쉬운지라..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해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습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인의노래 2009.03.06 09:29

와우~~

엔들핀가득 2009.03.06 09:50

좋은 말씀 가슴에 새기고 오늘 하루 실천하면서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004ok 2009.03.06 09:51

좋은 글 잘 읽고갑니다.

포테기 2009.03.06 09:55

관용....
현실적으로 우리는 권력이나 돈의 권력을 권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어감이 있는것 아닌가요,,,
척또는 빼기면서 나오는 말,,,내가 ...베풀지 하는그런 어감이 아닌가요,,,
그러니까,,,지금 정부에서 이모양 이꼴의 현실이 발생되지요,,,
말씀하신 내용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로 참된 뜻으로 이해를 하고 실천을 하여야 하는데....

shWkd 2009.03.06 10:08

이렇게 자주 노짱님 글을 보니 너무 반갑고 기분 좋은데요...

아침에 과거 동의대 사태의 진실에 관한 이면 기사를 보면서 문득 생각해 보는게 진실과 역사 그리고 현실과 권력의 관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양심있는 진보와개혁세력들은 현실(자기이익)과권력만을 쫓는 세력에게 이렇게 당하고만 사는지...

결론은 역사라는 관점에서 길게 보면 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늦었지만 2009.03.06 10:31

저기 죄송한데요 다음 선거때 누구라도 좋으니 한사람한테 지지표명해주시면 안될까요? 늦게나마라도 노무현대통령님의 높은뜻
과 국민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마음을 알았기에, 은근슬쩍이라도 좋으니, 누가 나온것 같다고 말씀해주시면 아무생각안하고 무
조건 찍겠습니다. 선거때마다 쏟아져 나오는말들 일일이 분석해가면서 할 능력도 안되고, 시간도 없습니다. 무조건 노무현대통령
님을 믿으니, 아무라도 좋으니 누구인것 같다고 비스무리하게라도 말씀해주시면 무조건 찍겠습니다. 짧아서 이렇게 밖에 글을 못
올리는것 용서하세요.

OB 2009.03.06 10:33

지난주 서울에서 오신 장인어른 (만 70세 이십니다)께서 "뉘~ 돈있는놈 마음테로하는거지, 민주주의가"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숨
만 쉽니다...

밖에서 보면 조국에 상황이 더 암쓰럽고 더 큰일처럼 보이긴 합니다만, 또 다른 면에서는 더 객관적으로 볼수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
이곳에서 시간을 보내시는 여러분들께서 더 큰 소리를 내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밖에서 보는 한국은 완전 미치광 소용돌이
이고요, 좀 극하게 말씀드리면 완전 개판입니다. 저는 기회만 되면 이곳과 또 노무현 대통령님에 대해 여기 미국에 살고 있는 분들
께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의 문화, 특히 정치 문화는 이곳 동포들의 삶에 아주 깊숙히 연관되어 있지만, 특별히 정치에는 관심이 없
는것이 사실입니다. 썩어들어가는 조국의 모습에 가슴이 아픕니다.....

현자요수 2009.03.06 10:43

오늘 가입해서 댓글이 관용에대한 정의?에관한 글인듯한데...정말 어렵군요 성인군자라 할지라도 제대로 관용에대하여 적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렵고 심오하네요.앞으로 좋은글 그리고 국민이 알아야 할것들을 많은 지도부탁드립니다.이렇게 온라인로나마
만나뵈어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백당시기 2009.03.06 10:48

힘있는자(有力者)가 너그러운 것은 일종의 관용이다.
힘없는자(無力者)가 너그러운 것은 일종의 비굴이다.

자기를 무시하고 비판하고 정도가 지나쳐 모욕까지 당하는 힘있는 유력자가 과연 자기힘을 절제할 수 있는나가 관용의 척도이리라.
차라리 이익의 다름이라면 논리와 타산과 설득으로 타협할 수 있으나 원초적인 정서의 충돌이라면 그것을 절제하기에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에는 얼마전까지도 그랬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그렇지만 그랬었기에 앞으로도 그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그저 굴러오는 것은 아니다. 자꾸 달아날 것이다. 쟁취해야 한다.

수박한통 2009.03.06 10:50

부산스런 아침을 겨우 추스리고 들어온 "사람사는세상"에서 님의 글을 읽게 되니 이런 행복이 또 있을까요?
찬찬히 읽어보노라니 님께서 차분히 이야기 나누듯 바로 앞에서 말씀하시는듯 느껴져 가슴까지 가득 차 올라옵니다..

우리들 삶의 길에서 큰 스승을 만나 더없이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의 학습으로 내일은 더 진일보한 제모습이 되어있으리라 기대해 봅니다.
늘 강건하세요..

해모수 2009.03.06 11:07

관용이란 말을 행동으로 옮기기엔 참 어렵습니다.

섬강청송 2009.03.06 11:09

관용에 대한 말씀 잘 읽었습니다, 그런데 관용의 뜻을 풀이 하시는 깊은 이유에 대해 잘 알지를 못합니다만,결론이 없군요,또 계가 계시관에 글을 올리면 가차없이 글이 해우소로 직행하는데 비판적인 글을 대하는 태도에는 관용이 포함될 수 있을까요? 여기 죽치고 앉아서 글을 올리는 몇분들은 단 한시도 이 계시관을 떠나지 못하고 댓글맨이 되어 있더군요, 어떤 무서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노무현님의 공식홈페이지에서 약간의 비판문도 수용하지 못하는 소아병적인 현상과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인지 이해하기가 어렵군요, 노무현님의 의견이 정말 궁금합니다. 이 글도 해우소 직행인가요?

다이징 2009.03.06 11:12

기막힌 현실속에서 그나마 이땅에 대통령님같은 지도자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으로 조금은 위안이 됩니다. 일반 대중 서민들에게 제임시나 퇴임후에나 가장 가까이 계시는 대통령님 당신의 존재함 만으로도 희망은 싹트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발치에서나마 꼭 한번 뵈고 싶습니다.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손가락이짧은사내 2009.03.06 11:30

감사합니다.하루하루가 먹먹하고 답답할뿐인 작금의 세상살이에 노공이산님이라도 계셔서 위안 삼으며 삽니다.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글 많은 의견 따뜻한 말씀 자주 올려 주십시오.가진 것 누릴 것 별로 없는 힘없는 백성인 저로선 내 아이에게 물려 줄 유일한 재산이라고는 노공이산님의 글과 생각을 가르치며 키우는 것입니다.항상 건강하시길....감사감사...^^

끼리코 2009.03.06 11:32

관용...
얼핏 들으면 누군가를 위해 내가 양보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누군가와 다른 내가 이해받거나 존중받기 위해서...
그렇게 함께 사는 세상에 필요한 덕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를 위해서 상대방을 인정해야 하는데...
아직은 너무 힘이듭니다,
도대체 그들의 머릿속이 의심스러워셔요..^^

좋은 말씀 잘 읽었습니다.

맘새 내리던 비가 그치고,
서울 하늘에 따뜻한 햇살이 피었습니다.
그렇게 따뜻한 햇살이,
이곳에 오시는 모든 분들께 기쁨이 되길 바랍니다!!~

진영지기 2009.03.06 11:38

일부 언론이 비판 받는것은 한쪽으로 치우지기 때문 일겁니다.

여기 글판에도 건전한비판은 누가 뭐래도 보호 받아야 합니다.

다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비판이 되어야겠죠.

관심이 많다고 댓글맨은 아니겠지요

여기에 사람이 모이는 이유는

그만큼 살기가 힘들다는 뜻 아닐까요?

또 현 정부에 실망 했다는 다른 표현으로 전 봅니다

디댕동 2009.03.06 11:55

사랑합니다.
우짜든둥,,,당신의 말과행동 그리고 글을 접하면...
'담백함' '진정성'이라는 개념을 곱씹게 합니다.
추기경 김스테파노 의 다큐방송 중에서..
그의 집무실 분위기에대한 나레이션....

"'소박'함에서 '광채'가 있고,'검소'함에, '위엄'이 있었다."

그분의 행적에 대해서는,온갖 주관적 평가를 할 수 있겠으나,
위의 표현으로 그분의 삶을 읽는데, 별반 혼란이 없을듯하다.
'소박';'광채';'검소';'위엄'.....

그리고...

'담백';'배려';'관용';'용기';'헌신';'진정성에대하고뇌'가 읽힌다.

이시기, 방향모를 분노와,누구랄것도 없이 일어나는 연민에 지친 심신은,
'속'의 개념을 보여주는 삶이 사무치게 그리워진다.

인드라망 2009.03.06 12:17

오늘은 월차를 내고, 한가하게 커피 한잔 하면서 새로운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설계 하는 중입니다. 제 아내의 월차를 내고 일하는 '남'은 또 보다보다 첨이라고 푸념입니다만.. ^^;; '오늘의 커피'가 참 맛이 있네요. 값은 비록 저렴하지만, '생각을 하게 하는 힘'이 커피 속에 있나 봅니다. '생각을 하게 하는 힘', '각성을 촉진하는 힘', '되돌아보고 겸허해질 수 있도록 하는 힘'.. 이런 것들이 노공이산님의 글에 있는 모양입니다. 비록 단어 하나에서부터 긴 문장에 이르기 까지 이견과 다른 감상이 있을 수 있지만, 생각을 하게 하고 궁리를 하도록 만든다는 점에서, 노공이산님의 글은 개인적으로는 저 자신을, 좀 더 넓게는 시민사회를 충분히 건강하게 만들고 남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김구 선생께서 원하셨던 '문화'의 힘이 아닐까요? 대화와 소통이라는 문화.. 제가 존경하는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제외하고서라도 이러한 문화를 가능하게 하고 풍족하게 만들어주신다는 점에서 저는 늘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전있는대한민국 2009.03.06 12:18

관용이란 인간관계에서 필수 이상의 덕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도 해봅니다.

젯말 2009.03.06 12:30

관용이란 단지 '다름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이를 수용하는 것과는 별개이고, 특히 용서와는 전혀 별개라고 봅니다.

다름에서 나아가 용서까지 가능한 것은 '성자의 경지'에 도달해야 가능한 것 아닐까요?

어른이되고싶은아이 2009.03.06 12:46

고통은 짧게! 행복은 길~~~계! 전 노무현 대통령님 나온 을지부대를 나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이 방문하셔서 식사하신곳에서 매일 밥을 먹었지요 그말에 정문은 제가 들어가기 전이어서 몰랐는데 계단을 아예 하나 만든거라네요~;; 아무튼 노무현 대통령님 아이들 같은 언론이나 아이같은 정치인들의 말에 너무 고통스러워 하지 마시구요 노무현 대통령의 든든한 지지자인 국민들의 말씀을 많이 들어주세요 힘내시구요! 화이팅입니다! 진격!!!(저때는 안줬는데 노무현 대통령님 시절때는 진격이라고 하셔서요~ㅋ ㅋ;;)

매주님 2009.03.06 13:02

노공님때문에 밤에도 여길 들어와야할듯 합니다. 꼭 이틀날 점심시간에만 들어오니,,저녁늦게 한번 들어와야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많이 배우고 갑니다.꾸~벅

가행수 2009.03.06 13:03

노공님 덕분에 또 새로운 것을 공부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노공님 글 읽을때는 관용이 곧 용서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오늘 글을 읽으니 관용에 대한 구체적인 뜻을 많이 공부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ㅋㅋㅋ..

행복한윤이 2009.03.06 13:19

관용과 용서^^...그래요 많은것을 생각하게 하네요..

제가 용서 할수 없는 사람이 한사람있어요...너무나 사랑하기에 용서가 안되는...그래요...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말씀이네요..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양손잡이 2009.03.06 14:07

노무현씨 당신은 아집과 피해의식으로 사로잡힌 폐쓰는 늙은 어린이아로만 보이네요 작은 것에 화내고 흥분하고 지기실허하며 속 좁은 독불장군 아이처럼...

당신이 썼던 경제정책의 효과가 지금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일시적이고 가시적인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공기업의 덩치뽀리기.

정부의 과도한 토지보상과 수용. 이2개만 본다면...

쫄 침묵 좀 하시고 편히 사시다가세요

좋으시겠습니다.매니아층 많아서.주가 아닌.

신의소리 2009.03.06 14:17

양손잡이!!!

너야말로 피행 망상 중이다.

그냥 신경끄고, 쳐 박히는게....어떠냐?

아자쟁 2009.03.06 15:06

하고 싶은 말씀하세요 답답합니다...

니리 2009.03.06 15:11

사랑합니다.

청갈매기 2009.03.06 16:09

무슨 말씀을 하셔도 우리대통령님의 배려를 느낄수가 있습니다.

존경합니다,사랑합니다,늘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십시오.

Cyrus 2009.03.06 16:28

제 아들,딸의 양식으로 쓰겠습니다.

무극이아빠 2009.03.06 16:35

역시... 사랑합니다^^!!!

포터 2009.03.06 16:43

조금씩 숨통이 트여가는 느낌입니다.

감사합니다. 눈물겹도록....

박영길 2009.03.06 16:53

100번째 댓글을 답니다
건승하십시오.

pelham 2009.03.06 17:15

그럼 전 101번인가요.
무릇 글이란 이래야 하는군요.
노짱님 강건하십시오.
시민민주주의가 이 땅에 확고히 뿌리내리는 그 날까지~~

칼루아 2009.03.06 17:16

101번째 프로포즈...ㅎ

이렇게...대통령님의 화두를 던지고...
대화를 나눌 수 있어 기쁩니다....

제 수준 또한 한 등급...
업그레이드 되는 기분입니다...^^

돈나무 2009.03.06 17:18

이렇게 글로나마 자주 뵙게 되어서 참 좋습니다^^

굴뚝새 2009.03.06 17:48

감옥의 벽은 무지 높더군요...사람들 사이에 벽이 있습니다...차들로 쌓은 단단한 벽이 있습니다...

찜찜 2009.03.06 18:05

우리국민들은 언제쯤 민주주의를 완성시킬수 있을까요?

노짱사랑 2009.03.06 18:10

노통님,,,문제는 저 인간들,,한나라당과 그 아류들,,,
이런 문제 자체에도 관심없습니다...

우리도 세력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우리과 같은 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다수가 되는
세상이 빨리 올수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찾고, 만들어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맘속의 대통령이시어,,,,,
항상 건강하세요^^*

안성사랑 2009.03.06 18:22

어이쿠,오늘 보충학습이 있었네요.
허리도 편치 않으신데 너무 무리하시는 것 아닌지 걱정됩니다.
좌우당간, 또 감사드립니다.
기온도 따스해져 가는데 나들이도 좀 하시지요
안 나오시면 제가 봉하마을까지 가겠습니다.
존경합니다.

묵은김치 2009.03.06 18:40

관용 이란단어가 십지는안는군요

더욱 배워야 할것으로 알고 열심이 노력하겠습니다

박가이브 2009.03.06 19:03

요즘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노대통령님 후배 분이 이 글이 이해가 될지 궁금하네.....
잘 읽었습니다

하늘우러러 2009.03.06 19:07

고맙습니다...
곱썩어 읽고 깊이 새겨야 하는데
바쁜 상황이라 대충 읽었습니다...
이 글 없어지지 않겠죠?
여유있을 때 다시 들어와 꼼꼼히 읽고
가슴 깊이 새겨두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꾸벅

지산골선비 2009.03.06 21:17

참여정부 시절에는 답답했지만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살았는데...
지금은 아무리 생각해도 답답함과 불안함이 가시질 않습니다....
그 시절엔 그래도 등불이 많았는데...지금은 작은 초롱불 하나 보이지
않는것 같습니다...
합리적인 사고와 행동을 가진...그런 사람이 또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통일 2009.03.06 21:36

건강하시죠 ^^

통일 2009.03.06 21:38

노무현 대통령님과 권양숙 여사님 ^^
봄이 오고 있습니다

환절기 건강 잘 챙기세요 ^^

자안 2009.03.07 00:08

이밤 너무 깊이 있는 글을 보니 머리가 그렇잖아도 별도 없는데 다 빠지겠네요...담부턴 그냥 힛트만 주세요. 답은 스스로 체득해야
알수 있지 지식은 아닌듯합니다.모든강이 결국은 바다로 감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이 더 가슴에 깊이 와 닿습니다..관용의 논
리보다..해해해..건강하시고 힘내세요.등산 많이 많이 하시고 몸짱되세요 요세는 몸짱시대입니다..^^

tmfg18652 2009.03.07 00:49

너무너무좋은말씀 매번 감사드립니다 내일또 뵈음하는 제바람입니다ㅋ 건강하십시오

소지개 2009.03.07 01:27

몇마디만 읽어도 새록새록 생각하게 하는 좋은글..깊이 있는글인데.
지금 조인스등에서는 난리가 났네요. 알바들이 그쪽으로는 많다고는 들었지만 그런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는데도 그대로 믿는 사
람들이 더 불쌍해요. 민주주의란게 이런건지...더이상 나아가면 안되는것인지...우리나라의 민주주의란것은 아예 없었던것인
지...그냥 쓸쓸할뿐..
그래도 모양새가 다른것처럼 그 마음속에 들어있는것들도 다들 다른것이
이치다 생각하고 그런것들에 아파하는밤 조금이라도 없기를 바래봅니다.

황석산 2009.03.07 04:06

이 좋은글도 꼬투리잡는 조중동을 비롯한 몇몇 신문이 있더군요.

kodery73 2009.03.07 04:09

이 시간 생업에서 당신의 글을 읽으며 오늘 있을 저의 하루를 빛나게 밝혀 줍니다. 무지도 사랑했던 당신이 없기에, 아니, 그 존재감
이 주변에 자연스레 떨어지는 가을의 낙엽이 대지를 덮듯이... 그 대지를 멍하니 바라보는.. 그리고 한없이 한숨만 나오는 저는 당신
의 민초입니다. 봄이 옵니다...

예의지저자 2009.03.07 10:42

좋은 말씀 잘 보았습니다.

물론입니다. 노 대통령님께서 관용의 한계, 즉 불관용에 대하여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김수환 추기경과 관련하여
관용을 말씀하신 것의 취지도 전적으로 찬동합니다.

관용이라는 개념은 이미 10여년도 훨씬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의 요소 중 하나로 소개되었고 이후로 차츰 지식인들 사이에
그 인식이 공감되기 시작한 비교적 오래된 사상입니다. 주로 프랑스에서 공동체 생활의 '일반적인' 상식으로 통용되는 문화적 요소
입니다.(문화적 요소라는 말은 굳이 정치적 요소로 갈 필요까지 없이 사회구성원 각자의 생활경험으로 구축되고 체득된 그 사회내
부의 광범위한 '일반상식'이라는 표현입니다) 미국같은데는 이런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단어는 존재합니다.

그 의미도 노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으며 불관용의 의미도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또한 헌법에도 '방어적 민주주의'라고
하여 관련조항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시다시피 민주주의의 기본인 가치상대주의나 가치다원주의, 사상과 표현의 다양성을 원
칙적으로 인정하되,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사상과 그 표현 및 정치적 활동은 '단호하게'응징한다는 것입니다.

즉 불가치적 혹은 가치중립적인 상대적 민주주의를 '넘어서' 민주주의를 영속적으로 수호하기 위하여, 불가치적인 민주주의에 핵
심가치를 부여하여 가치지향적인 절대적 민주주의를 조화시킨 것입니다. 상대성과 절대성의 절충입니다.

노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용의 개념은 이론의 여지도 없고 별다른 견해차이도 있을 수 없는 깔끔한 개념입니다. '타인
의 취향을 너그러이 용인한다. 나의 취향이 용인되기를 바라듯이' 이것이 끝입니다. (여기서 취향에는 정치경제사회문화 여타 모
든 것에 대한 취향이겠죠)

그러나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이 관용이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사상은 아직 우리나라에서 그 언어가 가지는 실질적 지배력이 극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우파든 좌파든 물론하고.

그 이유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구에서는 독일, 프랑스 불문하고 역사진행의 과정에서 1.과거의 역사적 잘못에 대한 진지한 사과와 철저한 청산의 과정을 거쳐서
수직적 수평적 힘의 균형을 회복한 상태를 전제로 2. 그 이후 이 균형에 기반하여 밀물듯이 터져나온 사회각계각층의 사상과 표현
의 욕구와 그러한 제 정치세력간의 충돌을 조절하여 사회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기술로써, 사회구성원 대다수의 광범위한 인식의
공유하에 일반적 상식으로 승인 된 것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위 1.의 단계를 거치지 못하였기에 정치세력간의 화해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습니다. 관용이란 그 성질상 현재의 평
화를 유지하기 위한 기술이지, 과거의 잘못을 청산하거나 사회적 응보를 하여 파괴된 평화를 회복하기 위한 기술이 될 수는 없습니
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위와같은 전제를 획득치 못하였기 때문에 관용이 성립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근대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엄청난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고 다치고 명예를 잃었습니다. 그에 비하여 그 반대편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은 세력이 끈질기게 그 힘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한번도 최소한의 납득할만한 수준으로 바로 선 적이 없고 그 상태가 아직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통류하는 멘탈리티의 저변에는 이러한 사무친 원한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있는 것을 없다고 그 존
재를 무시할 수도 또 부정할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각 정치세력간의 관용도 어느 정치세력내부에 있어서의 관용도 어렵다고 봅니다. 어느 정치세력 내부에서 관용이
실현되려면 심리적인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각 정치세력간의 대결이 워낙 치열한 것이어서(생존이 결정될 정도로) 상대방과 대결
하기 위하여는 내부의 결속과 단결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다보니, 하나의 생각(또 다른 전체주의와 다를바 없죠) 이외의 작은 생각
들은 설자리를 잃어 버리는 것이고, 김수환 추기경에 대한 일부 비난도 마찬가지로 맥락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역사는 균형과 반균형, 평화와 반평화를 반복하며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어가는 것이고, 관용이란 식탁에서 밥을 나누어 먹는 기술
인데, 아직도 우리는 어두운 상태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였기 때문에 관용보다는 어둠을 밝히는 촛불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
각합니다.

이처럼 저는 관용의 이론적 의미보다는 그것이 널리 사회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사회정치적, 역사적 전제조건이 더 중요하다고 봄
니다. 그래서 관용이라는 단어가 바로 용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사회정치적, 역사적으로 실제 통용되는 사상이나

문화요소으로써의 관용은 용서와 화해를 전제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잡설이 길었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p.s

일전에 세상을 바꾸지도 권세를 누리지도 못하였다는 말씀과 정치하지 마시라는 말씀에서 노정치인의 비애를 느끼고 마음이 아파한 말씀 더 드립니다.

만약 노 대통령께서 세상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을 목적하셨다면 노 대통령은 실패한 사람이지만, 세상의 '일정 부분'을 바꾸는 것에 소명을 마치기로 목적하셨다면 그 목적은 달성되었다고 확신합니다.

노공이산 아자~ 2009.03.07 11:03

이 기쁜뜻 깊숙히 보관하겠습니다
이렇게라도 찾아 볼수 있어 좋네요^^
환절기 감기 조심 하세요

진정한삶 2009.03.07 16:40

참으로 고맙습니다.
이곳에 오면 나의 영혼이 맑디맑은 한여름의 아침이슬방울에 아침햇살을 받아 빛나는것 같은 느낌...

어린 소년시절 아침일찍 소풍을 배려 가야만하는 운명에서 아침이슬방울이 아침태양에 빛나는 것을 보고 잠시 머뭇거리는 그때의 순간이 정말 행복했던것 같습니다.

meme 2009.03.07 16:42

Education For Life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 삶자체가 자유민주주의를 배우고 익혀야 하는 과정일 것입니다. 차이를 인정하고 그차이의 좋은 점을 붙들고 좋은 방향으로 키워 줄 수 있는 학교에서의 삶이어야 하는데 어쩌면 우리는 자기자신과 주위를 돌아볼 여유가 없는지도 모릅니다. 자기자신도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어찌 주위의 이웃을 생각할 여유를 가지겠습니까?

EDUCATION FOR LIFE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무엇을 위해 우리아이들을

교육하는지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올해는 담임을 합니다. 좀더 담임인 저부터 여유를 가지고 그들의 차이(Difference)를 인정하며 다같이(Together) 추억을 만드는 반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많은 대화와 토론도 해야하는데 중학교인데도 현장은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글 잘 읽었습니다. 하나는 전체를 전체는하나를 위해! One for All All for One

-봄이오는 길목 김해에서 -

미네달밥 2009.03.07 16:43

보고싶습니다.

박진 2009.03.07 19:35

뒤늦게 대통령님글 읽습니다
요즘 여기들어 오는게 예전같지못해 죄송한마음입니다 ..

역시 노무현은 그대로임을 확인합니다 ..죄송한말씀이지만
오후3시넘게서도 이 글을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것이며
대통령님의 말씀행간을 파악치못한저도
부끄러워얼굴을 감춥니다...

노무현은 살아있다~~!!
노무현은 역사속에흘러가는
박제된 선구자가아니라
지금 이시간 현실속에 살아준동지며
역사의 거울이되어줄...
하나의 준거체로 굳세게 존재하고있음을
재확인하면서 ..

발본과 2009.03.07 20:48

19세기 영국 비평가 콜리지는 toleration과 tolerance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전자는 나와 다른 생각이라도 박해를 받지 않을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고, 후자는 나와 다른 생각을 그냥 수용하는 것으로, 양자를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콜리지의 제안과 상관없이 사람들은 두 단어를 그냥 비슷하게 씁니다만, 글쓰기 편의상 콜리지의 구분을 이용하겠습니다. 우리말 관용은 toleration의 번역어지만, 한국어어감으로는 반대 의견을 수용하는 것처럼 들리기가 쉽습니다. 노 대통령님이 관용과 용서가 다르다고 한 말씀도 그런 차이를 지적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혼동을 좀 줄일 수 있는 한가지 방법은 toleration을 참을 인자를 써서 관인이라고 부르고, 관용이라는 말은 내용상의 수용까지를 포괄하는 현재의 일상적인 의미로 남겨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불관용은 나와 다른 입장에 대한 비판을 뜻하므로 아무 잘못이 아니고 오히려 건강한 공론을 위해 장려해야 할 일이 되고, 막아야 할 것은 불관인이 되겠지요.

이 경우에도 관인의 역할, 즉 불관인을 관인할 수 있는냐는 문제는 남습니다. 하지만 관인의 역할이란 단지 "모두를 관인한다"에서 "모두"를 유의미한 맥락 너머까지 잡아늘인테서 발생하는 일종의 언어적 착시현상입니다. 관인은 기본적으로 양심, 사상, 표현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므로, 표현의 자유를 부인하는 사상도 표현의 자유는 누려야 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암살하려는 정권에 대한 관인까지가 관인의 이념에 포함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 표현의 자유를 신봉하는 사람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체제에 저항하는 것은 전혀 모순이 아니고 당연한 논리적 귀결입니다. 이때 저항이란 말이니 글을 통한 것만이 아니고 때로는 몸과 행동을 통한 저항도 당연히 포함되었지요.

다시 말하면 전체주의를 설파하는 이론은 관인의 대상이고, 선거를 통해서 전체주의 정권을 잡으려는 시도도 관인의 대상이 되지만, 그런 정권이 무력으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들면 당연히 관인의 이름으로 저항하는 것이 전혀 역할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관용이라는 말이 이미 홍세화 씨 등의 노력으로 상당히 정착된 상태라서 느닷없이 관인으로 바꾼다는 것은 현실적이지는 못합니다 다만 관인이라는 말이 좀더 적확하다는 사실만은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가능한 한 퍼뜨리면 좋겠습니다

발본과 2009.03.07 21:20

한 마디만 덧붙이겠습니다. 존 스튜어트 밀은 표현의 자유를 무제한적이고 절대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 체계의 원리로 수용되어, 지금은 자유민주주의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시금석에 해당합니다. 표현의 내용이 무제한이라는 것이지 표현의 방식, 즉 행동에는 제약이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이때 유의할 점은 행동에 대한 제약의 경계를 단지 일반 형법으로 정한다는 것입니다. 즉, 폭력, 살인, 방화, 사기 등이 범죄일 따름으로 무슨 정치적 목적이 있는지 없든 지를 문제삼지 않는다는 애깁니다. 밀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데서 자유가 끝난다고 봤습니다. 이 느슨한 문구에 관해 철학, 법철학, 정치학, 법학계에서 많은 논란이 있는데, 올리버 웬델 홈스 판사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clear and present danger)이라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오늘날에도 아주 중요한 기준으로서, 노 대통령님의 글에 "구체적이며 현실적인 위험"이 아마 같은 내용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더해 현재 미국 연방대법원은 폭력수단을 통해 정부전복을 시도하라는 이론은 말이나 글로만 표현되더라도 수정헌법 제1조(또는 미국 권리장전 제1조)가 정한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참다운세상 2009.03.07 21:37

관용의 역설과 한계...
많이 배우니다. 이렇게 배우는게 너무 좋습니다.
그것도 제일 존경하는 분께 받는지라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충청도 아줍니 2009.03.07 22:01

관용 을 대나가나 너무 난발하면 민주주의 가 후퇴할수도 있겠다는생각이 듭니다. 공부 잘했어요 ,노무현 전대통령 님 존경 하고 사랑합니다 ,역대 대통령 중 제일 멋있으시고 아름다운 대통령 이십니다.힘내십시오,힘합 힘!!!

rudtr2 2009.03.07 22:43

글 내용에서도 많이 배우지만, 글에서 노공이산님의 인품이 느껴져 너무 좋습니다. 건강하세요^^

나의 각하 2009.03.07 22:56

울 각하의 말씀이 다맞고요 구구절절이 옳으신 견해를 피력하셨네요 하지만 잃어버린 10년동안 보수세력들이 얼마나 준비한것같아서 참 답답하네요 다시는 정권을 놓지않으려구 개노력하는 그들이 울각하를 건디는것만은 참을수가 없네요 어떻게든 울각하를 흠집을 내려고하는 모습이 저를 열받게합니다

코알라ksj7 2009.03.08 00:50

거짓없이 상대방도 같이 발전해야 하는 것이 좋겠지요.
주입식 교육은 옳지 않아요.
기억하는 것도 없고 남는 것도 없거든요.
시야가 한정되어 있는, 기호로 만들어진 공식만 남은 것 뿐이죠.
인생에 '한'으로 남는 일이에요.
왜 그때 선생님들이 그렇게 암기만 시키며 매일 시험만 봤던건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요.
남는게 없어요. 있다면 이력서에 고등학교 이후로
여러 칸을 더 채웠던것 정도이죠.
매일 쪽지 시험보고 몇 달에 한번씩 고사시험 보고,
뭇보면 혼나는 것. 그것뿐이었어요.
어린시절 받은 교육에서 지금까지 삶에 유용하게 쓰이거나,
어떤 도움이 되거나 그런 것이 없어요.
친구들만 남았다고 해야하나.
대학에 와서 많은 것을 알았어요.
그때를 생각해보면 답답한 남는게 없는 배움이었어요.
불과 몇년 되지 않은일이지만요.
어디서 제가 배웠던 것처럼 공부를 시킨다면 말리고 싶네요.

雲南cafei 2009.03.08 06:14

좋은 글 감사히 잘 읽었습니다.

송목 2009.03.08 09:28

저도 한번 읽었는데 잘 이해가 안되 다시 한번 정독 하고 말씀올리겠습니다.

플랑기2 2009.03.08 16:41

틀레랑스란..관용.. 민주주의의 관용은 나와 남이 생각이 다름을 인정하는것이군요.. 우리나라는 머리색도 피부색도 같은 민족 같은 핏줄..그래서 무엇이든 같아야 한다는 생각이 많은거 같아요 그래서 생각 역시..같은 생각을 가져야한다는 동일사고에 빠져 있는 거 같습니다..
민주주의이란 다양성을 인정해야하는데 말입니다..
대통령님의 글을 읽고..오늘은 관용의 참 뜻을.. 민주주의 관용에 대해서 다시 깨닫게 되었고.. 제 스스로도 타인의 견해와 의견이 나와 다름을 불쾌해 했던..것에 대해서 반성하게 되었고..
이런 깨우침이.. 확산이 된다면 ..우리나라도 민주주의의 기본이 바로 잡힐거란 희망이 생깁니다... 감사합니다..

종로 2009.03.08 18:20

늘 건강하세요~♥♥♥

송하 2009.03.08 18:31

사상을 겸비한 정치인이 참다운 지도자입니다.
그대를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기를 빕니다.부산 중부교회

전월성 2009.03.08 22:03

무슨 말씀인지 조금 감이오지만 완전히 이해할수는 없는것 같습니다. 어렵고 이렇게 많은 의미를 가진 관용인줄은 .. 하지만 항상 좋은 글을 만날수있어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사람이 밥만먹고는 못사는 거니깐요...

zardo 2009.03.08 23:54

이나라 친일들의 지금행동을 보면,도저히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용납이 안됩니다. 선거한달전부터, 선거하러 가기전에 에들얼굴한 번 보고 선거하면 좋은선거할수있다고 했는데요(물론 특정정당을 지지한건 아니지만!)왜 아직도 친일은 현재진행형인지!!!개인적

으로 열린우리당 출신이 집권하지 못한것이 너무나 아쉽게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홈페이지에서 쌍스런 욕할수도 없고!!!
전 친일을 용서하기가 싫습니다!!!!

행복한 여자 2009.03.09 06:44

제 마음이 너무 복잡하고 슬픈고 아픕니다.
그 많은 기회를 한번도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마음은 한결같습니다.
제가 만일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다른사람한테 복과 행복을 주는 사람으로 태어 나고 싶습니다.
저는 많은사람들 한테 아픕을 주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분들한테 용서와 관용을 구하고 싶습니다.
제가 용서를 받고 다시 희망을 가지고 살수 있을까요?
노공이산님!
소중하신 글 저에 대해 많이 생각하게 했습니다.
항상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

피보나치 2009.03.09 12:35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곁에있어 참 행복합니다.

사계절 2009.03.09 13:25

그래서 언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취재원으로부터 획득한 사실의 전달, 분석, 비판 등 모든 부분에서
언론은 자신의 입장에서-'논조'라는 미명하에- 스스로의 이익에 부합하는
말과 글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들의 인격과 양심이 바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행복한세상의아빠 2009.03.09 15:38

존경합니다..

여늬^^γ 2009.03.09 16:17

대통령님 아니 노짱님 사랑합니다...

덕유산호랑이 2009.03.09 18:16

노무현 대통령님 정말 이나라 쎄쎄했습니까?
사랑합니다. 그럽습니다.

노른가리 2009.03.10 13:02

대통령님!
그럽습니다..그때가
존경합니다.

월희 2009.03.11 00:39

관용에대해 깊이있게 생각하는 계기가 될것같습니다. 여러번 더 읽어야겠어요 감사합니다.

팔공산인 2009.03.11 08:53

거두절미하고 참으로 해괴한 말장난이다. 본인 스스로 "우리말 사전에는 관용이라는 말이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함'"이라고 말 해놓고 제가 말하는 관용을 잘 이해 못한다고 했는데 사전의 해석과 다른 관용도 있나요? 국어학자도 아니면서....

사랑합니다노짱 2009.03.11 17:28

"관용"이라는 단어는 대학교 교양수업때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아직 저에게는 많이 어렵네요..관용이라는 단어도 사람마다 다 다르게 생각할테니까요시간날때마다 한두번씩 읽어보아야 겠습니다 분명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글이라고 생각합니다.//노대통령님 잘 계시죠? 하루빨리 봉화에서 노대통령님을 뵈었으면 좋겠습니다..건강하시고요 !!

플러스유 2009.03.11 23:51

역시 괜히 민주주의대통령이셨던게 아니구나 싶습니다. 시민을 때려잡고 세뇌시키려는 족속들과 지금도 맞서 싸우시네요. 진정한 시민이십니다.

리타아저씨 2009.03.12 16:01

잘 읽고 갑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빌겠습니다.

설악당귀 2009.03.13 01:28

비내리는 늦은 밤, 관용과 용서에 관해서 많은 것을 느끼고 생각합니다.
존경을 표하며, 건강하십시오.

유다서 2009.03.13 18:41

before, president!
love only!

151385 2009.03.13 22:50

사랑합니다!관용이라는것을 학문적으로 또는 이론적으로만 하석하고 판단하는것보다는 개인의 가치관과 환경에 따라서 차이는 인정해야되지않을까요?

영빈 2009.03.14 10:08

내 맘속 유일한 대통령은 노공이산 뿐입니다.

머슴 2009.03.14 11:10

생각을 하게 하네요...관용에 대해

낭만식객 2009.03.14 15:20

용서와 관용에 대해 공부하고 갑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명민킹왕짱무현 2009.03.14 22:14

영원한 님버1.....
노무현대통령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tmfg18652 2009.03.19 20:10

너무너무 좋은말씀 제마음에 양식이 쌓여갑니다 감사합니다

희망이 2009.03.28 22:30

사람사는 세상은 신들이 살지않고 사람이 사는 세상이기에 사람사는 세상이겠지요. 결국 우리도 사람이기에 관용,포용,용서,다 어려운 행하기에 어려운 것들이지요. 말도,단어도,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활해 나가는데 있어서 자연스럽게 살라고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것인데 우리가 만들어 놓은 도구들에 의해 끌려다니면서 살아가잖아요. 감성과 이성 이것은 백지장 한장차이지요. 감성은 곧 이성이고 이성은 곧 감성이잖아요. 그저 자연스럽게 살아가는것이 제일 세상을 잘보고 사는것이 않닌가 싶습니다.사람이 하루중에 명상할수 있는 시간이 최소 삼십분만 주어지더라도 우리 한국의 정치,경제,사회,종교,교육,등등의 여타 부분에서 더욱더 자연스러운 한국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랑해노간지 2009.05.26 15:36

안녕하세요 대통령님.'관용' '똥레랑스' 우리사회에 가장 필요한 것일거예요. 관용을 베푸셨던 대통령님! 이제 편안히 쉬시길바래요..^^

chs1007 2009.05.28 04:06

나와 다른 남을 인정하고 대화로 소통하는것... 아마 그렇게 되면 감정적으로 싸울일도, 폭력이 있을일도, 언성을 높이며 싸울일도.. 없어지겠지요...
남을 존중하는 자세가 가장 필요한 대한민국일거란 생각이 듭니다...
언론과 국회가 가장 필요한 자세일지도 모르겠군요...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
그런 세상이 올수있도록 국민들이 노력하겠습니다...
평안히 쉬세요.. 하늘에서 저희를 지켜주세요. .

울보a 2009.05.28 05:57

노공이산님.. 사랑합니다..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하늘에서 지켜봐주세요..

나의각하 2009.05.31 03:19

미치겠습니다. 자꾸만 가슴속에 뜨거운것이...
잠들긴 글렀습니다. 나의 각하님!!
제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TT TT

성터 2009.06.02 03:20

살아 생전 노장님의 피끓는 대선 출마 연설을 다시 보며 또 눈물 흘립니다.
3년반 남았습니다. 잊지 맙시다.
<http://bbs2.agora.media.daum.net/gaia/do/kin/read?bbsId=K153&articleId=38354>

손평쓰기

등록

목록

NO	제목	조회	글쓴이	등록일
38	[진보주의 글] 이렇게 가보면 어떨까요? (2009.4.7 노무현) (36)	27325	운영자	2009.07.22
37	[진보주의 글] 줄거리 4차 초안입니다. 이 마당에서 토론을 해봅시다 (2009.3.20 노무현) (8)	4534	운영자	2009.07.22
36	[진보주의 글] 전체 줄거리 제3차 초안입니다. 토론으로 정리를 해봅시다 (2009.2.8 노무현) (6)	2945	운영자	2009.07.22
35	[진보주의 글] 전체 줄거리 구성에 관하여 2차 초안 (2009.1.27 노무현) (4)	2706	운영자	2009.07.22
34	[진보주의 글] 전체 줄거리 구성 1차 초안입니다 (2009.1.23 노무현) (27)	13715	운영자	2009.07.22
33	'사람세상' 홈페이지를 달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1392)	387868	노무현	2009.04.22
32	저의 집 안뜰을 돌려주세요 (1056)	289429	노무현	2009.04.21
31	강 금원이라는 사람 (1522)	354982	노무현	2009.04.17
30	부탁드립니다 (971)	157178	노무현	2009.04.08
29	사과드립니다. (1246)	186147	노무현	2009.04.07
28	좋은 글 하나 추천 드립니다. (122)	130872	노무현	2009.03.19
27	G20 재무장관회의 기사를 보고 (97)	56636	노무현	2009.03.15

26	상대주의와 보편적 가치 (107)	26086	노무현	2009.03.13
25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가 무엇인가요? (83)	30610	노무현	2009.03.12
24	토론마당 하나 소개합니다. (71)	26684	노무현	2009.03.07
23	관용의 한계는 누가 설정하는가? (83)	16589	노무현	2009.03.06
현재글	관용은 용서와 다릅니다. (164)	52304	노무현	2009.03.05
21	연속극 끝났는데... (271)	119268	노무현	2009.03.05
20	정치하지 마라. (275)	109605	노무현	2009.03.04
19	민주주의와 관용과 상대주의 (192)	28455	노무현	2009.03.01